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국일론 향상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웅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청지기는

바로 당신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3월 31일까지

현재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구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따르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통하여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참신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막 8:34) 이를 위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기도 of 청지기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어린 학생들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해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출 14:24) 하나님의 산 사면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렘 26:34)

현재 주력교구를 중심으로 매일 새벽에 진행 중인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에 교구에 관계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꽤 먼 거리에 위치한 교구 식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거나 서둘러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해야 할 것이 예수님이기때문에 힘써 기도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 6:3) 앞으로 3월 한 달간 계속될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빠짐없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은총으로 고난주간(4.1~4.7)과 부활절(4.8)을 온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력 교회주변 진도

여전도회, 3월 14일(수)

남전도회, 3월 17일(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발자취는 십자가였습니다. 조종과 고난 그리고 죽음이었습니 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총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고 넓습니 다. 따라서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이여야 합니다. 복음전도! "우리가 다른 가짜의 마술로 가져 거 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8) 이번 주 수요일(수 1부 예배 후, 여전도회)과 토요일(후 2시, 남전도회)에 있을 총력 교회 주변 진도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모든 전도회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라! (금요일양집회)

믿음과 행함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바뀌어진 피조물의 삶을 살피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삶을 여전히 의심하며 믿음보다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꼭 붙들며 믿음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과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율법적인 삶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케 하셨다. (갈 2:20)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을 아신다. (계 5:9~13)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수를 가리켜서 계산할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한다. (계 7:9,10)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념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역동적인 삶의 근원과 근원에서 흘러 넘쳐나는 삶 전체를 함축하고 있다. (요 20:21)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 즉 믿음과 성령님의 역사가 실질적인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껏 갈라디아서에 담겨있는 행함은 십자가에서 죽는 행을 근거하고 있다. 바울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을 책망하고 있다. (갈 3:1)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 육체의 개념마저 없이어야 한다. (갈 5:24, 6:14)

행함은 성령 말씀에 순종함을 뜻한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진리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의 행실에 의존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행위이다. (히 10:37~39)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다. (딤후 4:2)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 다른 것들을 따를 것이다. (딤후 4:3,4) 그리스도인은 경령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해야 한다. (시 1:2) 진정으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들로 알게 하신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요 7:17,18) 그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천이며 겸손이 자유함이다. (약 1:21,22,25) 매일매일 말씀에 의하여 보존되어야 한다. (요일 2:14; 계 6:16,17)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셨다. (사

50:4~6)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다. (마 4:4) 새벽에 일어나신 예수님은 한한곳을 찾아 기도하셨다. (막 1:35)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 의존하셨는데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들은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도 엎드려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욕망으로 요동하는 내 자신의 삶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행함은 성령님께 의존함을 뜻한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우리에게 또한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갈 6:14)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갈 5:24)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요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우리의 행위이다. (롬 8:13) 성경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또한 주관하셔야 한다. 그리하여 신자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갈 5:25; 엡 5:18)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회와 가정,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나타내시고 또 증거하시고 또 그 빛을 발하게 하신다.

행함은 그리스도께 충성함을 뜻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전적인 충성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나니온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히 17:16~18) 우리는 진실로 영속한 견고를 받은 자들이다. (마 4:4) 우리의 책임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세상과 궤하도록 중매하는 자가 아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가리켜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사치라고 분명하게 말해준다. (요일 5:19) 한때는 이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에는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비방하든지 상관할 것이 아니며,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며, 성령님만을 의존하는 계속적인 믿음의 실천이요, 구원받아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매일도 영원토록 충성하는 믿음의 행함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만을 원한다. 아멘.

ALL OF US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Isaiah 53:6)

This powerful Bible verse begins and ends with everyone, all of humanity. There is no exception. All of us are born into a terrible situation, but all of us have a great opportunity for a wonderful life because of Jesus Christ. Through faith in Him, He takes away sin. He wipes it out making it possible for u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Without Jesus, we are all cursed. As cursed ones, we face unavoidable eternal damnation. The Bible emphasizes “all” for a reason. Romans 3:23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Not some people, but all people have sinned. Galatians 3:22 says, “But the Scripture has shut up everyone under sin, so that the promise by faith in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Again, the Bible talks of everyone, and makes no exception. The good news is that Jesus “gave Himself as a ransom for all.” (1 Tim. 2:6) This means that “all” who believe in Jesus Christ will be saved. 1 John 1:7 says,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Jesus is the only answer to sin, and everyone has sin.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The great fall in the Garden of Eden affected all humanity, so that not one human being is righteous. Romans 3:10 says, “There is none righteous, not even one.” The sinfulness of mankind is universal, “The Lord has looked down from heaven upon the sons of men To see if there are any who understand, Who seek after God. They have all turned aside, together they have become corrupt;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Ps. 14:2&3) Romans 3:12 emphasizes the same thing, “All have turned aside, together they have become useless; There is none who does good, There is not even one.” Many of you who hear this sermon still do not think you are one of them, but I will tell you that you are exactly like one of them. Listen, if you do not accept the fact that you are a sinner in need of salvation, you are still in the middle of a very cursed situation because the price of any sin is death,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6:23) Everyone knows that death is real. Even if you do not believe in the Bible, you know that everyone has to die, “And inasmuch as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 (Heb. 9:27) Death affects all creatures. Sin placed us in deep trouble, away from God. Indeed, apart from God’s love there is no hope, but the love of God still gives us hop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Jesus is the only hope for life.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Even those who claim to be Christians walk their own way. Everyone who goes their own

way heads away from God and closer to hell, which is why Jesus asks His followers to deny themselves, take their cross, and follow Him. (Mt. 16:24) If you do not deny yourself, you reject God. If you do not deny yourself, you are rebelling against His love, His law, His goodness, and moreover you are going against His grace. God loved this world so much that Jesus came to save us. He came to save the rebellious ones. Sadly, “He came to His own, and those who were His own did not receive Him.” (Jn. 1:11) Even all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conferred together against Jesus to put Him to death (Mt. 27:1). They rejected Him, just like the world today. The same attitude continues the rebellion, so that many will not receive Jesus Christ and be saved. Even some believers still choose to go their own way, but today’s Bible verse is great, for it says that even when you go astray the Lord causes your iniquity to fall on Him. Jesus takes the fall, so that you can continue to walk with God.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Christ died to pay our debt of sin. Jesus paid it all in full! Romans 5:10 says, “For if while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1 John 4:10 states, “In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2 Corinthians 5:21 explains that God made Jesus “who knew no sin to be sin on our behalf, so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Through Jesus Christ we become believers in God.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and gave Him glory, so that your faith and hope are in God.” (1 Pet. 1:21) This is really great information! It is heaven’s song, “And they sang a new song, saying, ‘Worthy are You to take the book and to break its seals; for You were slain, and purchased for God with Your blood men from every tribe and tongue and people and nation.’” (Rev. 5:9) John testified, “After these things I looked, and behold, a great multitude which no one could count, from every nation and all tribes and peoples and tongu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in white robes, and palm branches were in their hands; and they cry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Salvation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Rev. 7:9&10)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Do you acknowledge the fact of your sinfulness? Do you admit your rebellion against God? Will you accept the One who bore your sins at the cross? Please, all of us, join this grace through Jesus Christ. What a wonderful blessing. Thank you Jesus. 🙏

다음 주일 설교

우리는 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6)



김성관 목사

우리는 다, 죄인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은 시작과 끝에 모든 사람, 곧 모든 인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행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죄를 멀리 던져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이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3:23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22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 번 성경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건으로 주셨다”는 복음이 그것입니다. (눅 22:6)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7은 말합니다. “자라 빛 가운데 계시고 내 빛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예멘 동산에서의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로 인해 단 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10은 말합니다. “기룩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의 죄성은 보편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극히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떠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 14:2,3) 로마서 3:12 역시 같은 사실을 역설합니다.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의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차리십시오!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자신 역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저주받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샅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샅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 6:23) 죽음은 하나님을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피해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 죽음을 앓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죽음은 모든 피조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열어주실 유일한 희망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눈앞의 이익만

을 좇아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길을 좇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옥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좇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 16:24)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법, 선하심, 더 나아가 그분의 은총에 대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최고로 사랑하셨고 그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반역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슬프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요 1:11)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조차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담합했습니다. (마 27:1) 그들은 오늘날의 세상처럼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신자들 중에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성경 말씀은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돌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값을 전액 지불하셨습니다! 로마서 5:10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요한일서 4:10은 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고린도후서 5:21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그에게 주셨으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셨습니다. (벧전 1:21)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제 천국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 5:9)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9,10)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한 참 교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죄책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

2007년 제1차 청지기훈련을 통한 은혜

그리스도의 교회

15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멀어버린 양이었습니니다. 어느 날부터 대학부에 나오지 않다가 군대에 가게 되었고, 제대한 후에도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지만 학교 가듯이 습관처럼 교회에 나왔던 저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도 군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가 기보다는 '군에 있어서도 교회는 가자'고 하고 그저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 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영의 양식도 얻지 못하고 괜히 피곤한 몸만 왔었다 하는 방황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봉사도 하 라는 누나의 권유로 다시 대학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금요찬양 집회와 청지기훈련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누나와 저뿐이고, 주일예배에만 나오는 편이어서 두 시간 동안의 청지기훈련은 웬지 지루하고 졸음이 올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금요일 저녁은 젊은이 들에게 세상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대지요. 저도 그랬습니니다. 그래서 청지기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의 그런 생각들을 새로운 은혜와 말씀으 로 바꿔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 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쁘고,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여태껏 저는 이것을 몰랐을까요!'

"금요찬양집회가 정말 좋다"고, "같이 가자"라는 수많은 권유가 있었지만 거절했 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말씀 내용 하나같이 저에게 외람은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없던 저에게도 할 일을 주셨다는 것과 제가 작은 씨앗이 되어 밋 지 않는 저의 부모님과 친구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할 저의 사명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복된 장미비를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 다. 그리고 이 믿음과 생각들이 지금 한순간이 아니라 저의 일생 동안 계속되기를 기 도합니다. 수년 만에 제가 교회에 다시 나오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청지기훈련에 나왔습니니다. "여러분, 주께로 저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이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끄러낸 누나가 제게 권유했던 것처럼 해보세요." 주님께서 언젠가 그 영혼들을 주 님 앞에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니다.

민승규(대학부)

회개 그리고 회개!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축복"임을 힘있게 선포하셨다. 그것은 평소 내가 원하던 축복과 많이 달랐다.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구원하 시며 복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이제까지 내가 받은 복도 모르고 더 많은 복 받기 만을 기도해온 것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이기적이었는가를 회개하게 하였다. 또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야하며, 교회가 하나님 의 축복이고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이 되게 하시고 그 개인을 통해 교 회 또한 발전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교 회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많은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 각과 눈은 세상을 향한 채 끝없는 욕심과 편견, 자존심만을 좇으면서 이미 받은 은혜를 무시한 채 살았던 모습을 역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은 복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며, 그 사람들은 특 히 낮은 자, 밋지 않는 자에게 축복을 나누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므 로 그 동안의 내 모습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속의 내 모습을 비추보면서 내가 얼마나 깨어져야 하는가를 깊이 깨달았다.

김현숙(집사, 6교구)

나를 깨어지게 하셨다!

2007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신년 메시지와 함께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와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찬 242장)의 찬송이 전하는 교 회를 향한 간절한 외침을 무심코 들어온 지 벌써 2개월이 되었다.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의의 병기로 살기를 갈망하는 분명한 방향 지시음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늘 그랬듯이 세상 일에 몰입할 때는 외면하고 있다가 교회에서만 더 다게 움직이는 모양으로 또 한 해를 진전 없이 보내고 있는 중에 청지기훈련은 이 런 나를 깨어지게 하고 말았다.

나 자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복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 그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복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서 다른 이들을 얼마나 복되게 했는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이론과 논 리로 상대방을 지치게 한 적도 많지 않았는가? 복음을 권능으로 선포하고 영으로 강구해야 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는 고집 때문에 주님이 피로써 사신 영혼을 주 님의 율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지 죄책감이 앞선다. 태함을 입 고서도 외도한 유대 백성들에 대한 질책이 결코 나에게도 예외일 수 없음을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안에서 너를 토 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이 두려움으로 밀려올 때 대략 2,500년 전에 선포된 에스겔 선지자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유리하고 방황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회복 의 말씀이 오늘의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됨과 동시에 지금 곧 내가 해야 할 최 상의 과제임을 알게 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를 통해 내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세우는 개인성에서 출발하 여 내 산 사명의 모든 곳도 복되게 해야 한다는 소명을 갖게 되었다. 꺼져가는 등불 과 영적인 사막의 혼재함 속에서 내가 지키고 수호해야 할 사명이 뚜렷해졌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죽었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십자가 회복의 능 력이 넘치는 가운데 자기부인과 회개로 거듭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침내는 주님께 서 산 사명 모든 곳을 통치하심을 노래할 수 있게 하옵시고, 빈 들의 마른 풀같이 내 영혼에도 성령의 단비를 뿌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영민(집사, 4교구)

기도와 순종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자!(골 3:26) 하 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주님의 교회는 회복되고 영원히 세워져갈 것이다. 이런 청지기훈련에서는 실천하는 믿음을 통하여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믿을 수 있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दै원도, 구역장의 사명도, 어떤 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다. 믿음 생활은 흐르는 물을 거울로 올라가 는 것과 같다. 전진이 아니면 후퇴인 것이다.

청지기훈련을 앞에 놓고 구역식구들을 강권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가장 싫어 하는 일이다. 권사님과 구역장을 제외하고 구역식구들 전부 직장에 다닌다. 삼십대부터 칠십대까지의 구역식구들에게 나는 휴대문 문자메시지 를 사용하여 교회소식과 안부를 전한다. 옛날같이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던 구역 모임은 사회 변화로 점점 힘들어진다.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구역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오직 기도뿐이다.

주님은 십여 년 넘게 새벽기도를 통해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과 온전히 맡기는 내려놓음을 깨닫게 하셨다. 감동한 새벽 추위에 떨며 함께 회개 기도한 믿음의 친 구들은 지금 또 자신들을 기다리는 구역식구들을 차에 태우고 교회로 간다. 그러나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가까운 곳만 운전한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대중교통을 이용 해 밥집을 다니느라 힘들 때가 많지만 이런 건강을 주님께 헌신해 감사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연약하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때, 왜 날 사용하시는가? 이에 대해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뿐이다.

이성희(집사, 18교구)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에스겔 34:26)

압축같은 어둠을 깨뜨리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연약한 저의 믿음에 새 힘을 부여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개인의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를 통해 기독교가 발전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받고 용기와 도전을 얻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자들과 믿음이 약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늘 몸이 약해서 교회에서 마음대로 봉사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도 복된 장마비를 내리시어 위로하신다는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어두워 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압축 같은 어둠을 깨뜨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구속의 은총을 넘어서 간증하며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박진희(집사, 예배대부)

참 잘했다!

말씀을 듣는 도중 옆에 앉은 친구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진정한 은총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기도했습니다. "저의 심령을 더욱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빈 자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주세요." 감동하여 내 집을 채워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새삼 고맙고 감사함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쁘다는 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감동하여 불러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주인이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강옥희(집사, 17교구)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교만해진다면!

청지기훈련의 말씀은 죄뿐인 저를 한없는 은혜로 가득 채웠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사실 전도의 모험이며, 주반전도와 기타 여러가지 봉사 속에서 힘들어서 게으름을 피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활동이 참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함은 물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미망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행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처하든지 바로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추수의 장소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나를 이끌어주시며 이 모든 것이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매일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그러하기에 말 아파도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교만해진다면 내가 바로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렁이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해주시고 항상 말씀 위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충현교회로 나를 인도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지영(집사, 9교구)

지렁이 같은 저에게도!

저는 주님을 영접한 지 석 달 된 새가족으로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열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번 1차 청지기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 교회임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곳 충현교회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내내 속으로 '야, 이거 큰일났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 주일성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 전도를 해야 하고, 교회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해외선교를 하고 더불어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저의 남편과 두 자녀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현재자매로 만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게으르고 나약하여 가사 일만으로도 찢쩍대는 제가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열리는 마음뿐입니다. 성경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아람아"(사 41:14)의 "아람"이 바로 "저"라고 느꼈습니다. 이제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난 날 주님을 떠나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지난해 12월, 교회에 처음왔던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한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겠습니다.(요 1:48,49)

김혜영(성도, 3교구)

한 알의 작은 씨앗

주님은 나를 어떤 물건으로 만드시려는 걸까? 그 동안 나도 편견의 우산 밑에서 있었는데! 그러나 벌거벗은 이방인의 몸으로 주님의 복된 장마비를 마음껏 맛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성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반석 위에 우뚝 세워졌음을 확신하며, 방에 새벽동이 트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쁨과 은혜로 맞을 것입니다. 그 무리 속에 내가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내가 있으니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종훈(집사, 2교구)

불을 붙이는 믿음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이 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각오와 심령이 어떠한지 되돌아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악하고 패역하고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복 주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 심히 부끄럽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등은 있었지만 기쁨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등과 기쁨을 준비하는 우리 개인이 폭발하는 화산과도 같은 뜨거운 심령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는 주님의 복성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불을 붙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이 믿음이 열매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정철규(안수집사, 13교구)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3. 7.)

누가 믿었는가! (이사야 53:1~2)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주님의 자녀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순간 죄인들에게 배 풀어주시는 보혈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절그릇이어야 한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사 53:1) 이것은 믿음에 관한 질문이다. 누가 믿었는가? 우리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를 믿고 있는가? 왜 우리는 단순히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는가?

연한 순 같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사 53:2)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믿지 않고 배척한다. 어찌된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죄뿐인 인간들 중에 연한 순 같이 나약하신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빌 2:6,7) 그것도 사골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눅 2:5,6) 매우 평범한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 (눅 2:40-42) 편히 쉴 만한 마당만 거처도 없으셨다. (눅 9:58) 예수님의 메시야 되심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마저 의심할 정도로 나약한 모습이었다. (마 11:4-6)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 메시아로서의 권위와 영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베드로를 욕하지 마라. 우리는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처럼 믿음이 아니면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다. 믿음이 아니면 넘어진다! 믿음으로 심령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새기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울이라 하시니라"(마 11:29,30)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사 53:2)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믿지 않고 배척한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전혀 없었다. 심지어 성전제로 내야 할 아주 적은 돈도 없으셨다. (마 17:24~27)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라고 했던 나다나엘의 말처럼 예수님께 기대할 만한 것은 조금도 없었다. 이처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유대인과 성경학자들은 생각했다. (요 7:52)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 "전제에 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갈릴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후일에 행하던 백성이 네 빛을 보고 사방의 그늘진 땅에 이르러서 빛이 비치도다"(사 9:1,2)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자.

사랑스럽지 않은 그리스도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사 53:2) 겉으로 보기에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지 않고 배척한다.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불품이 없었다. (사 52:14) 심지어 사람 기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는 별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행방기록이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시 22:6,7)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였다. (마 27:39) 이처럼 사랑스럽지 않은 그리스도를 향해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치와 고난 속에서 죽으셨다. 이 십자가에 달리 예수님께 흠모할 만한 것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비참함, 그 자체일뿐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 사랑스럽지 않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자.

누가 믿었는가! 예수님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 약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다. 성경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흠대받고 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모습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전혀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행복, 영광, 권력, 명예, 건강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러나 전혀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뚝 서 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사랑스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이면에 있는 가장 찬란하고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영광에 미혹당하지 마라.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금강석 같이 죄로 굳어진 나의 마음을 베혈로 녹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통해 열려있는 믿음의 길을 걷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홀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찬 219장) 아멘.

반석 같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건축위원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며 2007년을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나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의 교회보다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더 사랑했던 모습이 많았음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셨다"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경험과 지식을 얻어왔던 연약함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교회에 속한 여러 건물들이 평균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곳저곳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건축위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처럼 우리 교회의 건물들도 반석 위에 세워져 흔들리지 않도록 돌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행중인 본당 외벽 보수 공사는 작업의 세밀함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2년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2교육관, 선교관, 총현복자관, 총현동산, 총현기도원, 총현빌라, 제2·3복합관, 신목양관 등 교회 부속 건물들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건물 안전도 진단뿐만 아니라 조금의 문제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양로원, 수양관, 남급당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간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엄격한 건축법규 안에서 모든 서류와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환경부에서의 허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허가를 받아서 복음을 위한 시설들이 건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의 자발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얻으리라"(고전 15:58)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실제적인 사역에 믿음과 은사가 있으면서 이같은 분이 계시다면 주지하지 마시고 건축위원회(내선 461, 462)로 연락주신데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마 7:24) 건축위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세상은 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김언초(장로, 건축위원장)

교육탐방 제1교육위원회 교사

기도와 믿음으로 보혈을 전하는 선생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가 되시는 주님의 교회의 그림은 어떻게? 이 그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본문의 아이들이 있다. (마 18:12) 이들에게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에서 개신 선생님들의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나누어보자.

제1교육위원회는?

영어부에서부터 중등3부까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학교의 주일입니다. 그만큼 모든 교사들은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매주일 오전 8시 교육부에서 장로기도회로 시작하고 각 부서에서에도 기도를 가장 우선하고 있습니다. (조종만 장로, 제1교육위원장)

교사는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특히 유아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 전하기가 쉽습니다. (이애숙 집사, 유치부)

몇 년간 봉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몸이 아파 치료를 받으며 다시 한 번 내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희분 집사, 유아부)

예수님을 영접한 뒤 친구들이 있는 중등부에서 교사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머리가 희어질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영경 집사, 소년부)

부모님의 권유에 못 이겨 딱 1년만 봉사하기로 한 것이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교사를 통해서 제가 먼저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장주연 집사, 중등2부)

교사로서 누리는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야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안영희 집사, 영아부)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아이들이 혼자라도 예배를 잘 드립니다. 기도의 힘이 큼니다. (황규리 집사, 유아부)

전혀 달라진 것 같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아이



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희분 집사)

몇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꿈에서 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뒤 부모님과 함께 오는 그 아이를 보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감명했습니다. (오준보 집사)

학생들을 대하면서 가르친다기보다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이들을 변화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장주연 집사)

제가 많은 아이들 중에 먼 곳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한 학생 밝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제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강영경 집사)

교사 훈련은 어떻게?

매주일 부서별로 교사기도회, 교재교육과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이 있습니다. (김종문 집사, 중등3부)

천국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의 양육을 위탁받은 교사들이 오직 믿음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종만 장로)

매년 성경학교 전에 있는 교사 감회와 교사 영성훈련을 통해서 깨

어지고 있습니다. (한영숙 집사)

주님의 성도님들과 부딪치고 싶은 것은?

부모님께서 예배에 지각하시면 영아와 학생들도 예배에 지각합니다. 예배에 늦게 오신다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성경 한 매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애숙 집사)

먼 거리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같은 지역에 사는 교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영경 집사)

교회학교 학생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에서 오고 갈 때 따뜻하게 만나주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한영숙 집사)

자녀들에게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김종문 집사)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제목은?

3월 18일 교사 영성훈련에 모든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영희 집사)

현재 질병 때문에 매우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이 각 부서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그들의 가정에서 신자의 사명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황규리 집사)

5월 20일 주일에 새생명 초청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조종만 장로)

한 명의 영혼을 바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과 교역에서 충성의 나날을 보았을 때, 이 세상의 나날은 어둠처럼 그 어두운 내일을 밝게 만들 천국양육의 위대한 선생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생님들께 신자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성경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국)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지난 1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외식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단기선교를 세 차례 다녀오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선교지의 영혼들을 대하면서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선교지의 농가인들이 흘려진 기쁨과 감사의 눈물은 아직도 저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제발 가지 마라, 여기서 살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직도 제 귀에 메아리되어 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나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하는 선교지의 농가인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농가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년 7월 말에 다녀온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농가인들이 30여 명이나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만한 교회도 없었고 도움의 손길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농가인들을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이단들의 연합행사가 크게 열리다나 소식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하는 저의 마음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수확이 아니면 복음을 듣지도 못할 그들에게 농가인인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주님은 제 마음에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은사가 연약하고 부족한 저로 하여금 평신도 단기선교사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갈 2:20)

그때 평신도 단기선교사로 지원한 저에게 막대한 무리들은 매우 무거운 시련과 유혹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장애를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저의 약점을 들추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지만 내 안에 계시는 분의 성령님이기에!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그 같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저는 더욱 정결같이 단련되었습니다.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그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지난 15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주시며 매번 저를 찾아주시는 예수님께 저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죄인인 제가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았으니 제가 파송될 현지의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피로 씻김받아야 현지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평신도 단기선교사로 파송될 저와 복음에 목 말라 하는 현지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혜영(배바다부)

*농가인인 글쓴이는 선교지의 농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신도 단기선교사로 지원하였으며,

현재 파송을 앞두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 새 가 족 속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62	서민식	8	소양부	신앙학교	395	김미자	6	전남1부	구영희(18)
363	고진선	2	전남2부	전남교회(18)	396	김미희	2	전남1부	윤영진(19)
364	김관근	1	전남1부	김관근(15)	397	유인진	19	전남1부	박종식(15)
365	김종현	2	전남2부	김종현(15)	398	김재남	19	전남1부	박지민(19)
366	한지혜	14	전남1부	이성숙(15)	399	비바라	19	전남1부	박종현(15)
367	김성민	19	전남1부	김성민(15)	400	김현선	15	전남2부	조현숙(1)
368	최종일	14	전남1부	김영희(14)	401	김정희	15	전남1부	임태우(1)
369	서민진	17	전남2부	서민진(14)	402	이영희	6	전남1부	이영희(14)
370	서정원	4	전남2부	황 원이	403	김정현	19	전남1부	
371	김다은	8	전남1부	김다은(14)	404	이영희	4	전남2부	태영자(11)
372	김수진	8	전남1부	김수진(14)	405	김종호	8	전남2부	김종호(10)
373	남종훈	3	전남1부	남종훈(14)	406	박민이	19	전남1부	
374	김광민	14	전남2부	김광민(14)	407	정민진	19	전남1부	
375	오재현	19	전남1부	오재현(14)	408	하유	19	전남1부	조영준(1)
376	이은진	19	전남1부	이은진(14)	409	박종호	19	전남1부	조영준(1)
377	정옥부	1	전남1부		410	민지나	19	전남1부	박지민(19)
378	황기진	12	전남1부	황기진(14)	411	김미라	19	전남1부	박지민(19)
379	정주희	19	전남1부	정주희(15)	412	전지나	19	전남1부	안영진(11)
380	김현진	1	전남1부	김현진(14)	413	김지혜	19	전남1부	신복자(1)
381	정지민	11	전남1부	정지민(14)	414	정현숙	14	전남1부	박지민(19)
382	최희원	19	전남1부	최희원(14)	415	태현숙	19	전남1부	김정현(1)
383	김정현	14	전남1부	김정현(14)	416	이영진	19	전남1부	김정현(1)
384	김종호	14	전남1부	김종호(14)	417	이영희	6	전남2부	이영희(14)
385	임정희	14	전남1부	임정희(14)	418	정주희	13	전남1부	정주희(13)
386	박종호	3	소양부	황 원이	419	이영진	19	전남1부	박지민(19)
387	박종호	11	전남1부	김정현(14)	420	이영진(19)	19	전남1부	박지민(19)
388	김정현	19	전남1부	김정현(14)	421	조영준	19	전남1부	김정현(1)
389	이수진	19	전남1부	이수진(14)	422	김정현	19	전남1부	김정현(19)
390	김진호	4	전남2부	김정현(1)	423	조 은	19	전남1부	
391	이은진	4	전남2부	김정현(1)	424	전현숙	15	전남1부	전현숙(11)
392	김재현	4	전남1부	김정현(1)	425	정현숙	19	전남1부	김정현(19)
393	김종호	4	전남1부	김정현(1)	426	김정현	1	전남2부	
394	이영희	18	전남2부	정현숙(18)	427	정민진	19	전남1부	

*총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 등록표로 오시기 바랍니다. *

